

**2023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촌 형제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지만 나만이 유일하게 사립학교를 다녔다. 학교에서 나는 진리와 완벽함 그리고 빛의 세계 속에 있다. 다른 세계는 오류의 세계이며 그곳은 다름 아닌 공립학교이다(내게 ‘공립’이란 막연하게나마 ‘나쁜’이란 형용사와 동의어였다). 우리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는 모든 점에서 구별된다. 우리는 공립의 냄새를 풍기는 ‘공동 식당’, ‘동무’, ‘선생님’ 대신 ‘기숙사 식당’, ‘나의 동료’, ‘마드무아젤’이라는 용어를 썼다. … (중략) … 나는 루앙의 기독교 학교 청년 축제에 참가했다. 우리는 늦은 밤 버스에서 내렸고 수녀님이 내가 사는 동네까지 학생을 데려다 주는 일을 맡았다. 나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구겨지고 얼룩덜룩한 속옷 바람으로 머리를 산발한 어머니가 나타났다. 수녀님과 학생들이 하던 이야기를 뚝 멈췄다. 어머니가 어물어물 인사말을 건넸지만 아무도 답례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사립학교 세계의 시선으로 보았다. 우리의 진면목,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발각된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부끄러움의 표식으로 변했다. ㉠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내 부모의 직업, 궁핍한 그들의 생활, 노동자였던 그들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존재 양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다. 부끄러움은 내 삶의 방식이 되어 버렸다. 아니, 더는 인식조차 못했다. 부끄러움이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이다.

(나) 예술이 윤리적 의미를 갖는 순간, 미학적 취향은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며, 이것은 다시 고급 취향 대 대중 취향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든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자 대 피지배자의 권력 형식이다. 즉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구도 안에서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각 주체는 객관적 분류 체계 안에서 자신의 취향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높음 대 낮음의 형식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한편 문화 활동이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 **교육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는 누구나 감정적 융합, 인지행동, 해독 작업을 거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해독 능력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은 바로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 수준의 정도가 예술에 대한 고급 취향과 대중 취향을 구별하는 계기가 되며, 거꾸로 예술에 대한 취향이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예술에 대한 취향에는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전통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음식의 소비, 가구를 사들이는 취향, 패션 감각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감성의 형성 과정은 사회적 분류 체계로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의 저항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뒷면에 계속)

(다) 이미 수립된 질서가 지배 관계, 권리와 특권, 부당행위와 더불어 쉽사리 이어지고 있고,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주 빈번하게 용납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피해자에게도 감지되지 않는 부드러운 폭력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폭력'이라 부르는 것과 상통한다. 이 폭력은 대부분 소통과 지각,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몰지각, 인식,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정처럼 순수하게 상징적인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상징적 폭력은 물리력에 의존하지 않고 피지배자들이 사회적 위계를 정당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이게 함으로써 복종하도록 이끄는 지배 기제다. 이를 통해 지배층은 자신의 문화를 피지배층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지만, 피지배층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복종하고 불평등을 사회적인 의미 관계로서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게 된다. 놀라운 정도로 일상적인 이 사회적 관계는 지배 논리를 파악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지배 논리는 지배하는 자는 물론 지배되는 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원칙을 명목으로 행해진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 역시 상징적 폭력의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어를 너무 쉽게 당연히 여기 고 사용하며 그 속의 폭력성을 간과한다.

(라) 남성 중심적인 원리는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이 원리에 근거를 부여하려는 억지스러운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성과 여성을 근본적 으로 교차점이 없는 두 집단으로 보는 견해만 수용하고,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일치하는 정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된 차이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심리학자들도 있다. 한층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남성이 더 공격적이고 여성이 더 소심하다'와 같은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에 깃든 노모스(법, 관례, 제도)에 끌려 다닌다는 점이다.

(마) 능력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운동장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1990년대~2000년대 미국의 주류 정당들은 불평등, 임금 정체,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해답으로 교육을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을 중시하는 능력주의 이상(理想)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실는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자이자 시민으로서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능력주의 체제는 상류층이 그 지위를 대물림해 줄 힘만 키워주고 말았다.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세습귀족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

(바) 미국의 사회학자 미키 맥기는 자기계발서들이 현재의 희생을 통한 미래의 성공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마치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추한 'Before'를 벗어나 화려한 'After'로 변신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변신문화'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오늘의 한국 이십대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아직 무기력한 'Before' 상태일 뿐이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화려한 'After' 상태가 될 것이라 믿고,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기계발에 매진한다. 그 목표가 실제로 이뤄지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발인원의 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자기계발은 모두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러한 이면에는 이십대들이 변신문화에 매몰되어 자기계발을 하도록 유도한 우리 사회의 지배층에도 책임이 있다.

1-1. 제시문 (가)의 주인공이 ㉠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한 이유를 제시문 (나)의 ㉡ 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0점]

1-2. 제시문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 (마), (바)를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자율성을 확장시켜줄 것이다. 작게는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개인의 일정을 관리해 주고, 크게는 인류가 환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간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막힘없이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인간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받는다. 인공지능이라는 지적인 안내자는 불확실한 경제 및 정치 상황에서 인간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힘을 제공한다. 인간은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강력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갖게 된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세계 시민들은 더 나은 정보와 조언을 받게 되어, 정책은 더 현명해지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고갈되고 있는 환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물론 새로운 환경 자원을 창출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빈곤 상태에 있는 세계 시민의 고통을 덜어 주어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등 역사 발전의 동력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과 상상력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도록 ‘초지능 기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소유욕이 황량한 자연을 개척하게 만든 원동력이기 때문에 재산 축적의 욕구가 증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는 선조들이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는 욕구였고, 인간 욕망의 증식이 지구 전체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거친 수풀을 ㉠ **비옥한 평원**으로 만들었고, 넘나들 수 없을 정도로 황량했던 바다를 인간의 생존에 유익한 새로운 재원으로 만들어 냈다고 보았다. 또한 대지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富)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스미스의 주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즉 개개인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더욱 나은 삶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역사를 이끈 주문(呪文)은 ‘지능은 뛰어날수록 좋다’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확신한다. 인류가 정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능 자체를 이해해온 방식 때문에 그렇다. 기계의 지능은 ‘기계의 행동이 기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는 지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과 달리 기계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성할 목적을 우리가 부여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최적화한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에 목적을 부여한 뒤, 기계를 작동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는 목적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목적이 되도록 확실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기계에 우리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되라는 잘못된 목적을 부여한다면 기계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우리는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목적을 부여받은 ‘그리 지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더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 초인적 지능을 향한 행군을 멈출 수는 없어 보이지만, 그 성공은 인류의 과멸이 될 수도 있다.

(라) 우리는 방에 들어서면서 벤살렘 왕국의 관습에 따라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우리가 다가서자 그가 일어나더니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맨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축복하는 자세였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행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자연과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배양토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넓은 과수원과 공원도 다양하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경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나무와 약초의 성장에 적합한 토양을 연구할 목적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희귀한 동물을 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들을 해부하고 실험해서 인간의 육체의 비밀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더욱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원래보다 크게 만들거나 작게

(뒷면에 계속)

만들 뿐만 아니라 성장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요행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종의 동물을 교배시키면 어떠한 종이 나타나는지 알고서 실험한 결과이니까요. ... (중략) ... 이제 ㉠ 솔로몬 학술원 회원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들의 실험과 연구 결과로부터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며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용성을 찾아내려고 고심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참금 지급자’나 ‘은혜 수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 마르틴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이 단지 수단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인간과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탈은폐’라 칭한다. 탈은폐는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냄’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포이에시스적 탈은폐와 현대 기술적 탈은폐를 구분한다. 포이에시스적 탈은폐는 존재를 왜곡하지 않고 대상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대로 자연의 고유성을 파괴하지 않으며 오히려 존재의 진리를 드러낼 가능성을 열어준다. 반면 현대 기술적 탈은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의 고유한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다. 현대 기술에 의해 자연은 고정된 하나의 기능으로만 탈은폐된다. 지구는 채탄장으로, 대지는 채광장으로, 농토는 식량 공급원으로 탈은폐되는 것이다. 광석 채굴의 역사는 유구하다. 그러나 대지가 대지로 남아 있으면서 광석을 부여하는 경우와 대지가 광석 공급의 기능으로만 환원되는 경우는 엄격히 구분된다. 전자는 대지가 고유함을 보존하는 경우요, 후자는 대지가 현대 기술에 의해 파괴되어 광석 공급원으로만 탈은폐된 경우다. 전근대적 농부는 식물의 성장 비밀에 개입하지 않았다. 식물의 성장을 돌보고 보호할 뿐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농부는 농토를 다그쳐 더 많은 식량 생산을 요구한다. 농토는 더 이상 농토로서 남지 않고 식량 공급원으로 탈은폐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 또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며 현대 기술의 의지에 응답하는 부품으로 전락한다. 현대 기술적 탈은폐가 극도로 확장된 결과, 자연은 황무지로 변모하며 인간의 가장 내적인 본질도 상실된다.

(바) 상호주체적 서정성은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마찬가지로 주체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우리 시대 지구에 편재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체가 넘나들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호주체적 서정성을 무시하며 자연을 대해 왔다. 그 결과 자연은 주체가 아닌 인간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적 객체로 전락해 버렸다. 상호주체적 서정성은 관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발전되어야 하며, 실정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천성산 터널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건에서 보듯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이유는 사건의 신청인인 ‘꼬리치레 도롱뇽’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판결은 현행법과 그 바탕에 깔린 법철학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주었다.

2-1. 제시문 (나)와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가)를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마)와 (바)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 비유한 평원과 제시문 (라)의 ㉡ 솔로몬 학술원 회원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디어 기술이 우리를 점점 더 일차원적으로, 심지어 전체주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디어가 메시지가 되어감에 따라, 미디어는 우리를 더욱 더 평범하게, 획일적으로, 그리고 생각없이 만든다. 히틀러의 나치스, 스탈린의 공산주의자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가 보여준 ‘절대악’의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기술 사회 속에서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타자에 대한 사유는 없고 기능에만 충실한 인간으로 어떻게 전락하게 될지 그 정도와 폭을 알 수 없다. 우리가 미디어상의 언어와 사용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어의 무능은 타자에 대한 사유의 무능을 낳는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시작될,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악(惡)’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숙고와 설득, 합의의 언어가 필요하다.

(나) 미국의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분한다. 원초적 혐오는 배설물, 콧물, 시체, 썩은 고기, 구더기, 바퀴벌레 등에 접촉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거나 거리를 두려는 직관적 반응이다. 이런 반응을 특정 집단에 투사하는 것이 투사적 혐오다. 이를테면 유대인, 동성애자 등 특정 집단이 오염원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이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유대인이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뿜어낸다고 근거 없이 믿었다. 집 옆 도축장에서 악취가 나고 개울을 오염시킨다면 그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도축업자를 백정이라며 차별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초적 혐오는 법이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야 할 감정이지만, 투사적 혐오는 그렇지 않다. 동성애자를 보며 구토감이 난다고 혐오 표현을 고취·선동하여 이들에 대한 배제, 차별, 폭력 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다) 기관총과 같은 신기술은 1차 세계 대전에서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 기관총은 군인들을 참호로 몰아넣어 영국군이나 독일군은 자신들의 참호 어딘가에 있어야 했다. 그 외 지역은 양 진영의 중간지대다. 그 중간지대에서는 총을 맞고, 죽는다. 반대쪽으로 참호를 뛰어나가면 같은 편의 총에 맞는다. 오늘날의 기관총은 특정 집단의 소셜 미디어다. 서로를 마구 쏘아댄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쏘아댄다. 총알은 게시글, 트윗, 사진, 댓글이다. 결국 두 진영이 생기고 이쪽 아니면 저쪽에 들어야 한다. 서로 간에 중간은 없다.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볼 곳이 없다. ㉠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라) 미얀마리즈 마웅마웅탄 씨는/ 아침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어젯밤 마웅마웅탄 씨는 잠자리에 누워/ ... (중략) ... / 집을 그리워하다 곤히 잠들었는지/ 공장장이 내일도 주먹질할까/ 공장에서 언제 쫓겨날까/ 일손이 서툰 처지를 걱정하며 뒤척였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려고 않았다// 잠시 마웅마웅탄 씨를 알았던 동료들 중/ 한 베트남미즈는 봉급을 못 받아 빌려 쓰더라고 했고/ 한 스리랑칸은 불법체류자 신고 위협을 받았다더라고 했고/ 한 네팔리는 한 달 연이어 야근했다더라고 했다// 미얀마리즈 마웅마웅탄 씨에게/ 사인 불명이라는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마) 사람이라는 말은 사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 사회적 성원권을 얻기 위한 투쟁은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사회와 국민국가를 동일시하고, 사회적 성원권과 국민 자격을 혼동하는 이들에게는 이 명제가 지나친 비약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한국인인 내가 일본에 간다고 해서 곧바로 일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잠시 그곳에 머무를 뿐이다. 일본인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으로 대접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나를 외국인으로서 환대하는 것이지, 나에게 사회적 성원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 (중략) ...

사회적 성원권은 소속감과 다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별로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데도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에게서 볼 수 있다), 그 반대로 자기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뒷면에 계속)

생각하지만, 남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유럽의 동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사회적 성원권은 또한 법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도 위태로워지기 쉽지만,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법적으로 카스트가 폐지되었는데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불가촉천민들이 좋은 예이다). 한편 우리는 사회적 성원권의 부여가 문화적 자격을 요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지식이나 상호작용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실제로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할 뿐이지, 그에게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적 성원권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사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바) 악셀 호네프트는 무시에 대한 경험이 한 인격체 전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보았다. 무시는 인정의 거부나 박탈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긍정적 자기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무시를 통해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호네프트는 손상된 세 가지 자기 관계에 따라 무시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무시는 학대나 폭행이다. 두 번째 무시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무시는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사회적 가치의 부정이다. 사회적 가치의 부정은 공동체 안에서 그 가치를 부정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여기는 자기 가치조차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없게 된다.

㉔ **인정투쟁**은 훼손된 인정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일어난다. 인정관계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내가 도덕적으로 훼손당함으로써 느끼는 무시감은 내 자아의 실현을 방해하는 심리상태이다.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벗어나 인정상태를 복구하고 상대와 내가 상호인정하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투쟁이 발생한다. 인정관계의 경험을 통해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사랑, 권리 부여, 사회적 연대는 모두 인정의 형식이다. 사랑의 인정을 통해 구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지닌 존재로서 자기 믿음을 갖는다. 권리 부여의 인정을 통해 이성적,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자기 존중을 갖는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공동체에 자신의 능력과 특성으로 기여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로서 자기 가치 부여를 형성한다. 인정투쟁으로 획득해야 하는 것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내 인격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상대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투쟁은 개인이 서로 도덕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상호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㉓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을 비판하시오. (20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나)와 (라)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제시문 (마)의 ㉔ 사회적 성원권과 제시문 (바)의 ㉔ 인정투쟁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